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가는 중이다. 무당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월에 실시된 12개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파의 비중은 변집 조사(4개) 기준으로 최대 31%, 최소 29%다. 지난주 다섯 개 조사의 무당층은 최저 20% 최대 31%로 양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내년 총선의 성격을 묻는 조사는 모두 21개였는데 여당 심판론이 19승 1무 1패로 압도적이다. 4월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게 일곱 번 중 다섯 번이다. 하지만 중도 무당층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민주당 지지로 바로 이동하지 않는다. '돈 봉투' 파동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 철회가 늘어나는 양상도 보인다. 지난 주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68%인데 그 전주는 74%였다. 반면 국힘 지지층의 대통령 반대는 19%에서 25%로 늘었다.

한마디로 중도 무당층의 실망이다. 그들은 한쪽의 '친운' 득세와 다른 한쪽이 '개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을 외면한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이 제일 좋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공 조건

은 때다. 양대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때"라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보수 10년, 진보 10년을 얘기하는 데 그 20년 동안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이런 정당에서 과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겠나? 현재 상태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게 김종인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 스스로 20년 동안 속아 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이른바 '제3지대론 또는 제3정당론'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라며 급대섭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물꼬를 텄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3당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빌게는 1995년 JP의 자유민주연합, 가깝게는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 사례에서 보듯 대선 주자급 인물의 존재는 우리나라 제3당 출발의 필요조건이지만 동시에 실패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업그레이드된 제3당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문제 제기의 정치를 넘어 '의제별 문제 해결 능력의 정치 세력화'여야 한다.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 심리와 정치적 불만은 제3당의 출발 동력에 불과하다. 이

때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 대안의 제시 능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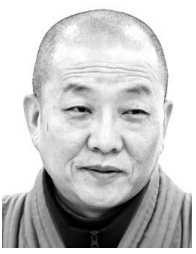
최근 대학가에서는 '1000원의 아침밥'이 화제였다. 학생이 1000원을 내고 농림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1000원의 아침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지원 단가를 높여 학교 부담을 줄여서 참여 학교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술 더 뜬다. 그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국 학교에 주자"고 한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사람들은 "내년 총선 앞두고 결국 혈세로 생색내는 것"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아침밥 한 끼 먹고 힙낼 수가 있겠지만 영원히 나오는 밥은 아니다. 같이 밥 먹고 치킨 먹는다고 젊은이들이 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청년들 마음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한다.

결국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 해결 능력이다. 민생 경제만이 아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의 '3대 개혁'은 물론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다. 선거 제도 개편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다.

누가 누구와 함께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의 실현을 위한 고통스럽지만 담대한 첫발을 시작할까?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며칠 전 화순 만연산에 올랐습니다. 만연산 정상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니, 무등산이 시야를 가득 채우며 장엄하게 서있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무등산을 향해 합장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 무등산이 우리 절 중심사를 천년이 넘도록 품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전국의 산사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걱정 끊어지고, 도량내의 대소제양 길이길이 소멸되며, 토지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치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네'

그동안 슬한 화마와 천재지변에도 불구하고 중심사는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지금의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무등산의 산신님을 비롯하여 이 도량을 웅호하는 신장님들께서는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온갖 재앙으로부터 천년 기도 도량 중심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년 만년 변함없이 이 도량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감사와 당부의 마음을 담아, 조촐한 공양물을 준비하여 무등산 산신재를 봉행합니다.

무등산 산신재를 봉행하며

일찌기 우리 선조들은 "조왕신은 집 안을 지키시고, 산신님은 집 밖을 지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산신님이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보살피시니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들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학업자는 일취월장하고, 사업자는 재수대통하며, 직업자는 수분 성취하고,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하기를 바라는 여러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세상의 이치를 잘 따랐기 때문으로 믿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실로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신님이 우리를 보살피려 주신다함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 오히려 우리들은 잘되면 내가 잘난 탓이요, 못되면 남과 세상을 탓합니다. 인연법을 통찰하는 지혜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위기는 결국 우리 인간들이 교만하고 무지한 탓입니다. 과거 선조들의 자연을 향한 경외심을 미신이라 치부해 버린 탓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현대 인류는 스스로 자초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자세와 슬기로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사 온갖 고통과 불행은 모두 우리들이 교만하고 지혜롭지 못한 탓입니다. 모든 길하고 행복한 일들은 자연과 더불어 어 우주가 우리를 잘 돌보고 보살피 주기에 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지"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산신님을 정성껏 모시려는 마음 가짐을 통해, 겸손

하고 진지했던 선조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야 합니다.

무등산은 빛고를 광주의 진산입니다. 빛고를 광주라 하는 이름에서 '광'은 무등광 부처님의 '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등광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무등산의 무등은 바로 무등광 부처님의 무등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이 땅의 선조들은 무등산에 아미타 부처님이 주석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신령스런 빛이 두루 퍼지는 이 땅이야말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 믿어 이 이름을 광주라 하였습다.

80년의 비극과 지난했던 항쟁의 역사도 무등산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20세기 광주의 역사는 진정한 극락정토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산신재는 우리 손으로 우리 고향을 극락정토로 이루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무등산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무등산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고를 광주를 빛고를 광주답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어디서나 조금만 고개를 들면 장엄하게 서 있는 무등산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잠시 고개를 들어 무등산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는 그 넉넉함을 가슴으로 느끼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잘 보살피 주시니, 그 보살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살겠노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고



이창수
광주 남구 주민행복담당관 팀장

광주 압촌에서 태어난 고경명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6000명을 모집했다. 창평에서 창의사가 된 그는 선조를 구하러 서울로 향하다 왜군이 전주에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말머리를 돌려 금산에서 왜군과 싸우다 거기서 죽었다. 1592년 음력 7월 1차 금산 전투에서 고경명과 둘째 아들 인후, 의병장 안영, 유평로를 비롯한 의병 800명이 전사하였다. 장남 종후는 아버지와 동생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이 있는 장성에 모신 후 복수 의병장이 되어 의병 400명을 모아 진주성으로 갔다.

나주에서 양산수 등과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도 강화도와 경기도에서 활약하다 왜군을 쫓아 진주성으로 들어왔다.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기 위해 최경회, 황진, 이종인, 장운 등 호남 출신 의병장들도 속속 진주성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모인 의병이 3600명이었다. 문헌마다 차이가 있지만 진주목사 서예원이 거느린 관군 3000명이 있어 총 6600명의 관군과 의병이 진주성을 수성하게 되었다.

행주산성에서 권율에게 패한 일본은 명나라와 강화 협상이 길어지자 바닷가에 거점을 마련하고 장기전에

진주성에서 순국한 호남 의병들을 기억하자

들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가토 기요마사의 울산성, 시마즈 요시히로의 사천 선전리성, 고니시 유키나가 의 순천 왜성이 이때 건설되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군 10만을 동원해 전년도인 1592년 음력 10월에 벌어진 진주성에서의 패배를 복수하고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진출을 도모했다.

왜군은 진주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지원군이 오지 못하게 길목을 막았다. 왜군을 지켜보던 권율, 선거이 등 조선군 지휘부는 적과 싸워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병장 홍계남, 객재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진주성 1차 전투에서 김시민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객재우는 진주성에 들어가려는 충청병사 황진을 만류하기까지 했다.

김천일, 최경회를 비롯한 호남 의병장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왜군을 진주성에서 막아야만 곡창지대인 호남이 지켜지고 나라가 보전된다고 믿었다. 왜군도 전쟁을 말리는 명나라 심유경에게 "히데요시의 명령이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희생을 줄이려면 차라리 성을 비우는 게 어때나?"고 제안했다. 일본의 침략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1593년 음력 6월 중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왜군이 진주성 공략에 나섰다. 의병과 관군은 아흐레 동안 혼신을 다해 왜군을 막아냈지만 비교가 안 되는 전력 차이와 여름철 장마는 진주성을 사수하는 조선군에게는 최악이었다.

하루에도 수차례 밤낮 없이 공격하는 왜군을 막아내다 지휘관 황진이 적탄에 전사했다. 다음날 장운마저 죽고 성벽이 무너지자 왜군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성이 함락되자 김천일은 장남 상건과 함께 남강에 뛰어들었고 최경회와 고종후, 이종인이 그 뒤를 따랐다. 진주성에 들어온 왜군은 6만의 피란민은 물론 가족마저 남김없이 죽였다. 남강에 시신이 가득해 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날의 처참함을 짐작할 수 있겠다. 왜군도 조선군의 엄청난 저항에 3만이 죽거나 다쳐 호남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있다.

진주 남강 하면 논개가 빠질 수 없다. 논개는 최경회의 후처로 진주성이 함락되어 최경회가 남강에 투신하자 자생으로 꾸미고 승전 축하연에 찾아가 왜군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들던 바위에 의암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근처에 추모비를 세웠다. 축석루 옆에 의기사라는 사당도 지었다.

진주성에 가보면 아쉬움이 많다. 1차 전투에 승리한 김시민은 돌보이지만 10개월 뒤에 벌어진 2차 전투에서 싸우다 죽어간 호남 의병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차 전투에서 순국한 김천일 최경회·고종후·황진 등을 장영사에 배향하고는 있지만 함께 싸웠던 무명의 호남 의병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없다. 진주성까지 가서 의지할 데 없는 유민들을 지켜주고 심만의 왜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간 무명의 호남 의병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날 왜군과 싸웠던 의병들의 후손이 300년 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싸웠다. 오늘의 광주 정신은 그들의 피와 땀에서 나왔다고 나는 믿는다.

社說

존폐 기로 지방대 살리기 지역 사회 머리 맞대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과 재정난으로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공여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생존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중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 결과 모두 18개 대학에서 3029명의 결원이 발생, 추가 모집에 나서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 대학 신입생 총원율은 광주 98.7%, 전남 92.7%에 그쳤다. 미래 전망은 더 우울하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의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46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로 현재 385개 중 절반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남 지역 대학 생존율은 19.0%로 다섯 곳 중 한 곳만 남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급감 탓이 크다. 신입생이 줄어든데 등록금까지 14년째 동결되면서 재정 형편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가 전국 대학 30 곳에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대학 30'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서열화를 부추겨 탈락한 대학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살생부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의 위기는 대학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늘어나면 주민과 청년들이 더 좋은 교육 여건과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 대학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지원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 육성 권한을 부여 받은 지자체들도 대학과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동반 성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사고 부르는 '도로 파임' 땀질 말고 선제적 정비를

광주시내 도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포트홀(도로 파임)로 목숨을 앓고 있다. 지난겨울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데다 최근 겨울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데다 최근 봄비가 겹치면서 포트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탓이다.

광주시가 관할하는 시내 폭 20m 이상 도로에서는 지난 2021년 1만 6166건, 2022년 1만 429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올해도 벌써 1만 1419건의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역시 2021년 1194건, 2022년 134건, 올 들어 15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폭 20m 미만 소형 도로를 관할하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역시 포트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1년 9255건, 2022년에는 5037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210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있그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시내 도로들은 여기저기 움푹 패인 포트홀로 누더기를 방불케 했다.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교 일대 도로는 5cm 크기의 파인 구멍들 때문에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핸들을 돌리는 차량들이 많았다. 포트홀을 피하려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도로 훼손이나 노후화로 발생하는 포트홀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의 지뢰'나 다름없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땀질식 보수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도로는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 사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응급 처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한번 포트홀이 발생한 곳은 도로 노후의 강도가 낮아진 상태라 땀질을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포트홀이 자주 생기는 지역은 고강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로봇견이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탐지하거나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이제 영화 속 장면만은 아니다. 로봇견이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대다수가 환영할 만하지만, 먼저 로봇견을 사용한 미국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다. 역사적으로 맹견이나 경찰견이 유색 인종이나 흑인을 탄압하는데 사용됐던 미국 사회의 트라우마 탓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수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했고, 원주민(인디언)들의 땅이 필요했던 이들은 '인디언 사냥'을 개시한다. 그 중 한 방법으로 영국 마스티프종 맹견을 사냥개로 활용했는데, 당시 마스티프 인디언을 물어뜯게 하는 건 합법이었다. 18세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디언 사냥 직전에 개를 가둬 놓도록 권장했다. 개를 가둬 약을 올리면 개가 한 층 공포해져 사냥이 쉽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유지되는 동안 도망자를 추적하거나 평소 노예를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맹견을 사용했고, 심

지어 1960년대에도 경찰이 흑인 인종 운동가들을 겁주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현재도 경찰견은 주로 유색 인종에게 사용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미국에서 애초 수년 전 로봇견이 투입됐던 곳이 공교롭게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이 사는 곳이어서, 유색 인종 출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로봇견의 성능 시험 대상이 됐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던 로봇견 투입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LA 경찰이 다시 로봇 경찰견을 스왑팀(기동 타격대)에 투입시킬 계획을 세웠지만, LA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의 회가 일단 로봇 경찰견 투입을 미루고, 두 달 후 투입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로봇 경찰견 투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로봇이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 뉴욕 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로봇 경찰견 반대는 로봇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불신과 맹견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경찰견 트라우마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